

# 게리 예이츠 박사, 예레미야, 강의 1,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저는 예레미야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Dr. Gary Yates입니다.  
1강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논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리 예이츠입니다. 저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침례신학교의 구약학 부교수입니다. 예레미야서 연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서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맥락에서 예레미야에 관해 생각하는 몇 가지 세션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예레미야를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적군의 공격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위에  
파숫군을 세우며 나팔 소리에 주의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선지자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적군이 곧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위기 중에 앗수르 사람들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려고 오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속한 바벨론 위기 때 선지자들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페르시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직면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에서도 선지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칼을 보고, 백성을 준비시킨다면,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의 일을 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플로리다에 살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허리케인을 경험했고 해변으로 내려가서 허리케인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안 수로를 건너고 있을 때 다리 위에 있던 경찰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는 매우 다채로운 비유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다리 위에 서서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던 경찰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선지자서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350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 특히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정치적 평론가와 같다고 상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뛰어난 관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성경이나 예언은 언제든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피터가 사용한 이미지는 바람에 이끌려 가는 돛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은 선지자가 묘사되는 방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1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고, 2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라는 생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레미야의 신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인간 선지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인간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화신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와 말씀의 맛을 먹었고 다 먹었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내 삶에 내면화했고 그것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슬픔이나 울음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삶에서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의 생생한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는 곧 일어날 심판, 재난, 재앙을 알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고,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방법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정치 세계에서는 왕들이 다른 사람들과 성약을 맺곤 했습니다.

제국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왕들은 그들의 가신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일련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이나 자신에게 조공을 바친 속국들에게 언약적 책임을 상기시키려고 할 때 종종 대사나 사자를 파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대사와 사자를 보내어 백성에게 언약의 책임을 상기시켜 주고 그들이 그것을 완수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속국이 언약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왕에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콧 듀발(Scott Duvall)과 대니 헤이즈(Danny Hayes)는 그들의 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에서 선지자들의 언약적 메시지를 네 가지 요점으로 요약합니다. 그들이 말하려는 첫 번째 요점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겼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조건과 합의, 약정은 당신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약적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은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주요 신학적 용어 중 하나는 돌이키다(회개하다)라는 뜻의 슈브(shub)라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서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유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을 바꿔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책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약 메시지의 세 번째 요점은 선지자들이 회개가 없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들이 파수꾼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선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메시지의 네 번째 부분은 심판이 일어난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하면 벌을 주거나 바로잡아야 할 때도 많았지만, 가족에게서 쫓아낼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책의 가장 중심인 30-3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아마도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메시지의 핵심 측면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둘째, 회개해야 하고, 자신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넷째,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과 세우신 구체적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이 구약의 더 큰 메시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특히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그리고 타락이 일어난 후, 하나님은 일련의 언약을 통해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초기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이 내 창조물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원래 계획하신 축복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6-9장에 있으며, 그 장들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노아와의 언약에서 우리는 모든 언약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땅을 멸하신 것 같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의무는 사람이 동물을 먹듯이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므로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인간의 피를 흘린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창조물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축복의 조건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의무를 주셨다.

인류가 바벨탑에서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을 가기로 선택한 후,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무리의 사람들, 한 나라를 통해 일하여 그들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셋째, 나는 너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없고 그의 후손에게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의무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어 축복의 도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의 아들을 희생하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맹세로 인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언약은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헌법을 제공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안고 왔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을 나 자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관계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온 땅에서 나의 소중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제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왕 같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언약의 조건, 그 메시지를 요약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613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에게 번영을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장수를 줄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위대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는 대신 저주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순종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위대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가족을 주고 장수하게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사는 특권을 주리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저주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포로와 죽음, 가난과 노예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가 나온 곳 애굽으로 다시 보내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조건은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분을 축복의 영역으로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이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있어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 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푸시는지를 보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이끌려 와서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이자 선교적 강조점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주님은 “내가 내 법을 크고 영화롭게 하여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으로 여호와를 따르게 하고 그를 알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백 년의 불순종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모세와 시내산 언약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네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정한 개인과 가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하신 일은 궁극적으로 이전 언약들의 축복과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지키고 소유하도록 도와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다윗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 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줄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왕은 왕좌에 오르면서 자신이 통치해야 할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 한 사람이 나를 순종하고 따르기만 해도 내가 온 민족을 축복하리라는 특별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백성, 이 나라 전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여러 면에서 그 백성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잠을 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부와 군사력을 얻을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왕과 같은 모델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계에 속한 선한 왕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결책이자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련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노아와 온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오랜 실패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실 다섯 번째 언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게 될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동안 수많은 실패가 있었던 옛 계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고, 새 언약, 새 계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800년 동안 모세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은혜와 자비로 내가 하려는 일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가끔 운동선수가 정말 좋은 한 해와 좋은 시즌을 보낼 때마다 시즌이 끝나면 팀으로 돌아와서 '계약을 재협상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형편없는 한 해와 형편없는 시즌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돌아와서 "이봐, 나한테서 돈을 빼앗아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이 확실히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새 계약에 관한 핵심 구절 중 하나는 실제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난 8세기의 실패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주의 하나님, 그가 선택적 기억 상실을 선택하실 유일한 것은 그의 백성의 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과거의 실패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법을 취하고 그것을 내 백성의 마음에 기록할 미래를 위해 능력과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는 소망과 능력과 능력을 주어 그들이 다시는 내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은 다시는 유배 기간과 예레미야의 생애와 시대에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잔디나 젖은 페인트 위를 걷지 말라는 표지판을 볼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상상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잔디 위를 걷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벽을 만져서 그것이 아직 젖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 외부에 있는 법칙을 받아들일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열망을 당신의 마음 속에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맺으신 다섯 가지 구체적인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노아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어겼으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언약은 사람이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한 노아 언약이다. 인간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땅의 나라들이 노아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백성에게 화를 선언하실 때 그들은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는 그들이 서로에게 행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 그들이 저지른 잔학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관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기초로 역사 속에서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기초로 장차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 언약을 기초로 하여, 613계명,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기별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7절에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옳게 하며 피차 공의를 행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10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기소할 예정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와 말씀이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신실함도 없고 변함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땅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유혈 사태가 뒤따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10계명 중 5계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모세 언약의 기초 위에 계시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저주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저주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몇 분 전에 이야기했던 구절들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으로 직접적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포로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국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순종하면 경고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저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0년 전에 그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저주는 현재 여기에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기원전 1400년 모세,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저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그들과 첫 언약을 맺을 때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는지 묵묵히 관찰하며 증거할 것이다. 이사야서 첫장에 이르면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은 증인들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가져오십니다. 들어 보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언약을 지켰나요? 대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약에 기초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날의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근거로 그 일을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을 바탕으로 그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데려오기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미래의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솔로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내가 네 집과 네 왕조와 네 왕위를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에게서 그 약속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집에 이르시되 다윗이 만일 순종하면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아들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나는 채찍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따라서 다윗 가계에 속한 모든 왕은 다윗 언약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축복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보좌에서 제거하셨습니다. 현재 2,5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다윗 왕조가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또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미래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그들이 왕위에서 물러난 후, 비록 2,500년이 지나도 주님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요시야나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선한 왕들조차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전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수십 가지 약속을 봅니다. 나는 무너진 다윗 집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나무를 베신 그루터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겠는데 거기서도 한 가지가 나오리라. 예레미야는 다윗이 왕위에

왔을 사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열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RE Clement는 사무엘하 7장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는 모든 메시아적 예언과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을 듣거나 메시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약속은 다윗과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약속은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언약,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실패와 비참함을 가져왔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선지자이다.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이 이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영을 넣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과 거의 똑같은 본문인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는 내가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물로 씻기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나는 그들 안에 내 영을 넣어 주겠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왕들과 재판관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을 부어 주셨던 옛 언약 시대와 같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놀라운 점은, 저는 여러 면에서 새 언약의 예언적 약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새 언약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인 주의 만찬을 함께 지킬 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이다.

이는 새 언약이 구상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누가 족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여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내 마음에 기록된 나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간증에 가져오신 변화, 이 새 언약은 실제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르면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는 신약성서의 어느 곳이나 어느 구절에서든 구약성서에서 가장 긴 인용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인용하는 구절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왜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절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레위인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 약속한 새 언약을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실현하고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서서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모퉁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둘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그들이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언약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의 언약과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과 맹세를 기초로 심판이 있을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원.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화살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즐기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더 완전하고 더 깊은 방법으로 이해하십시오. 나는 우리가 함께 이 책을 공부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Dr. Gary Yates입니다. 1강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논할 예정입니다.